

작품 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시편 23편을 가사로 하여 작곡자가 31세 때인 1953년 5월 3일 작곡되었다. 이 곡은 부산 피난시절 단간방에 피난 보따리를 풀어 놓고 네 식구가 고생하며 살 때에 홀연히 영감이 떠올라 단 3분 동안에 (너무 몰두하여 단 3분으로 느껴졌으리라 생각됨.) 멜로디와 반주까지 모두 작곡하였다고 한다. 나운영은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으셔서 탄생한 '영감에 의한 작품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이 곡은 1953년 5월 해군본부 군중감 정달빈 목사님의 초청으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LST(상륙함) 위에서 드린 예배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柳慶孫, 1921~2011) 독창으로 초연되었고, 1954년 1월 20일 출판된 나운영의 2번째 가곡집 『다윗의 노래』(한국현대음악학회)에서 출판되었다.

작품 초연에 얽힌 이야기

부인이자 이 곡의 초연자인 유경손의 기억에 의하면, 부산 피난 시절 해군 군중감이신 정달빈 목사님이 찾아 오셔서 LST 안에 있는 해군교회에서 매주 해군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독창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외국 성가곡을 부르다가 어느날부터 나운영이 작곡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시편 23편」, 「시편 15편」, 「시편 12편」, 「시편 46편」과 같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여러 군인들과 민간인들 앞에서 발표하였더니 선상이 온통 울음바다로 변하고 가사의 뜻도 모르는 미군 병사들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 한 가지, 1950년 부산 진해에서 이승만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첫 주일예배에서 초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잘 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곡은 1953년에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작품 해설

이 곡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리는 한국인 작곡의 독창 성가곡에 속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도 자주 불린다. 그의 가장 단순한 음악이면서도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다.

나운영의 설명에 따르면 곡이 시작하는 단선율의 왼손 두 마디는 다윗의 '피리' 이고, 그 다음 두 마디의 화음 부분은 다윗의 '하프' 라고 한다. 그가 이 시편을 작곡할 때 동원된 상상력이다.

이 곡의 독특함은 화성에 있다. 선율음이 삼화음의 기준이 되어, 그 밑으로 쌓아 내려가는 것이다 (물구나무삼화음). 이런 물구나무 3화음에서는 중지에서 I도로 끝나야 할 곳이 IV도로 끝난다. 물구나무를 서지 않고 '바로 선' 화음은 네 곳 뿐인데(끝부분의 '아멘' 제외), 마디 12-13의 새야화현도 그 중 하나이다.

삼화음 대신 새야화현을 사용한 부분에는 마디 3-4가 있다. 물구나무 3화음이려면 중간음 f 대신에 e' 가 와야 하지만, 새야화현으로 변형되어 그 뒤에 오는 d단삼화음으로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 새야화현도 5도 간격의 외성부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물구나무 3화음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변형은 너무 단순한 화성구조에 ‘다름’을 부여한다. 새아화현에 의한 변형은 마디 41-46에도 다시 나타난다.

정상적인 3화음 종지는 세 곳이다(마디25, 마디30, 마디34). 그 중 마디25는 곡의 절정 부분을 마무리하는 곳으로 지배적인 물구나무 3화음과 가장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정상적인 3화음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지만, 물구나무 3화음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으로 기능한다.

이 곡의 선율은 전반적으로 5음음계를 취한다. 5음음계를 벗어나는 것은 마디13의 b⁷과 e⁷이다. 멜리스마 속에 나타나는 이 두 음은 하강하는 선율에서 반음을 생성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음음계의 단순함을 넘어서면서도 반음을 기피하는 것은 서양적이지 않으려는, 한국적이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중에서 -

작곡자가 제시한 연주법

- a. 속도 : 1~17소절은 $J=46$, 18~30소절은 $J=56$, 31~39소절은 $J=46$
- b. 음색 : 5~8소절을 반복하되, 첫 번째는 밝게, 두 번째는 어둡게.
9~13소절은 다시 밝게, 14~17소절은 다시 어둡게, 22~30소절은 다시 밝게.
31~36소절은 다시 어둡게, 37~39소절은 다시 밝게 부를 것.
- c. 강약 : 12~13소절은 점점 세게, 다음에 점점 여리게.
22소절은 점점 세게, 34소절은 점점 여리게 부를 것.
- d. 발상
5~17소절은 목가적으로,
22~30소절은 열정적으로,
31~39소절은 다시 목가적으로 부드럽게.
13~14소절은 점점 빠르게, 다시 먼저 속도로.
25~26소절은 점점 느리게, 다시 먼저 속도로.
30~31소절은 점점 느리게, 다시 먼저 속도로.
34~35소절은 점점 느리게, 다시 먼저 속도로.
- e. 반주
1~2소절은 피리처럼, 3~4소절은 하프처럼.
34소절의 셋잇단음표는 tenuto로.
31~34소절의 오른손은 하프처럼, 왼손은 피리처럼.
25소절의 arpeggio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18~21소절은 오른손보다도 왼손이 더 여리지 않게.
- f. 기타
 - 1) 13소절에서 절대로 점점 느리지 않게. 그리고 숨을 빠르게 쉬고 즉시 다음으로 계속할 것.
 - 2) 22소절은 「진실로」에서 숨을 빠르게 쉬고 즉시 다음으로 계속하되 「선함과」에서 절대로 숨을 쉬지 말고 계속할 것.
 - 3) 25소절의 fermata를 세 박 정도 길게 부르고 한 박 정도 숨을 쉬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음을 부를 것.
 - 4) 34소절의 fermata를 두 박 정도 길게 부르고 한 박 정도 숨을 쉬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음

- 을 부를 것.
- 5) 36소절은 첫 번째에는 점점 느리지 않게, 두 번째는 점점 느리게 부를 것.
 - 6) 22소절의 첫째 박과 23소절의 둘째 박 이외에는 일체 accent를 붙이지 말 것.
 - 7) 23소절 「과」에서 점점 세게 부르되 숨을 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소 portamento를 붙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三重)

No.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나은영 作曲

作曲

編曲

Andante

③ *mf ~ mp*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④ *mf*
나로하여금 두 손조각에 송-기하시-며

⑤ *mp*
간-간-간 울-가로 간-간-간 울-가로 난-은

美山美響樂器店